

21세기 선지식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



한마음과 대행선
혜선 지음
운주사 펴냄
2만8천원

“내가 보는 바로는 근래 한국 불교계에서 그야말로 틀에서 벗어난 이른바 출격의 여장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마음선원을 창설하여 독자적인 ‘한마음’ 선사상을 널리 펴서 일세를 풍미하다가 일 년 전에 먼저 사바세계를 떠난 초대 한마음선원장 묘공(妙空) 대행(大行) 스님(사진·1927~2012)이다.” 책은 21세기의 선지식 가운데 한 분인 대행선사의 독창적인 선사상을 조명하고 그의 일평생 행적, 즉 전법 교화와 보살행을 정리한 책이다.

안양 한마음선원은 20세기 후반 한국불교에 신선한 자극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존 제도권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순탄하게 수행의 길을 걷지 않고, 그야말로 무사독오(無師獨悟)의 길을 걸은 대행 스님이 일약 불교 포교의 물풍을 일으켰다. 그것도 불교의 전통이 강한 영남권이나 사람이 물려 있는 서울에서가 아니라 불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의 성공이었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다. 생활불교, 현대불교, 세계불교의 가치를 내걸고 그야말로 불교 포교의 기린아가 된 대행 스님은 제도권의 시각으로 보자면 ‘무학(無學)’이다. 제대로 된 제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다. 특정한 수행 체계를 의지하거나 가르침 받을 스승도 없었던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터

득하고 널리 퍼낸 선사상과 수행 체계,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이 따라 수행 정진하게 한 실천적 지도력은 현대에 맞는 새로운 이정표를 이루는 매우 탁월한 것이었으니, 참으로 ‘자등명 범등명’의 불교정신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다. 대행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수행과 치열한 고행으로 대행 스님 선사상의 요체가 된 ‘한마음’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체득하고 이를 대중 속에서 실천해 나갔다.

책은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학술적으로 연구 정리한 최초의 책이다. 지금까지 선사의 범어집은 다수 출간되었지만, 선사의 삶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독창적이면서 정법에 기초한 대행선사의 ‘한마음’ 선·보살사상 제자가 학술적으로 최초 조명

고찰한 책은 없었다. 대행 스님의 제자인 저자 혜선(慧禪) 스님은 기존에 출간된 선사의 범어집과 각종 자료, 그동안 대행 스님을 모시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 등을 토대로 선사의 생애를 정리했으며, 아울러 선사사 주장하는 핵심사상과 그 사상의 배경,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의 의의, ‘대행선’의 특징 등을 고찰했다. 또한 대행 스님이 대중 속에서 행한 많은 보살행에 대해 정리하고, 그 배경에 ‘한마음’ 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대행선사의 사상이 독창적이면서도 정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책은 3부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대



행선사와 일심(一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1장에서 초기불교, 한역경전 및 <대승기신론> 그리고 천태종·화엄종·선종에서의 일심사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교 전통 속에서 일심(한마음)사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제2장에서는 대행 스님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스님의 행장기와 범어집 <무(無)>, 대담집 <한마음>, <한마음요전> 등 저술과 범어집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제3장 ‘대행선사의 생애’에서는 스님의 고단했던 가정사와 어린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했던 십수 년의 산중고행, 그 속에서 깨우친 진리 ‘한마음’, 마침내 대중 속으로 들어와 펼친 보살행과 포교행 등 선사의 생애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2부 ‘한마음과 대행선’ 제1장에서는 한마음의 선사상적 배경, 한마음의 본체와 즉음, 한마음과 조사선사상, 한마음과 불이(不二)사상, 한마음과 오공사상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마음사상은 선사의

핵심사상으로, 선사상은 ‘한마음은 바로 만물이 비롯된 근원이요 돌아갈 고향’이라고 말한다.

제2장에서는 대행선사의 수행관과 선수행 체계를 살피고 있는데, 수행관은 참선수행과 참나의 자각, 주인공의 관법, 세 번 죽는 수행, 안심법문과 조고각하의 수행으로, 선수행 체계는 본래의 주인공, 결정신의 수행, 방하착과 임운자재, 거듭나는 수행과 무상정등각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선사상은 일상생활에서의 참선수행을 강조하는데, 내면의 주인공을 무조건 믿으며 매사를 내면의 주인공에 맡기고, 모든 경계를 내려놓고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한다.

제3장에서는 대행선의 특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인 세제선법의 전개, 자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신행일치의 선법, 그리고 쉬운 용어와 한글로 가르침을 펼쳐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선법의 대중화와 보편화, 그리고 현대화를 이야기 한다.

제3부 ‘대행선사와 보살행’에서는 국내의 지원에서 포교 현황, 언론과 저서 등 매체를 통한 포교, 선법가를 통한 포교, 경전의 한글화, 제사와 천도제의 상차림의 간소화,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의 설립 등 불자들이 쉽고 편하게 다가가기 위한 선사의 포교 분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저자는 본 연구가 대행선사의 방대한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원력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선사의 한마음사상과 선수행 체계, 즉 ‘한마음과 대행선’이 생활불교·현대불교·세계불교의 가치 아래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하여 행복해지고 대자유인을 이루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출간의 의미를 새겼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행복해지고 싶다면...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정승석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8천원



우리는 참으로 풍족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멀리 돌이켜 볼 것도 없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보기만 해도 풍족함과 편리함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해 더욱 풍족하고 편리해진 만큼, 우리의 삶도 그만큼 행복해졌을까. 책은 자의든 타의든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또는 바라는 강도가 셀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은 바라는 것을 줄이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책은 이런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책을 전달하고자 한다. 전달하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이 불교를 표방한 것이라고 해서, 불자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르고 있는 종교가 있든 없든, 또 그 종교가 무엇이든, 행복이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말한다. 책의 주제가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다. 책의 요지는 무아를 깨닫고 무심과 하심으로 살아가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무지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그것을 얻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한다.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성취하고 나면, 기대했던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래서 다시 행복을 추구하고 그 결과에 실망하기를 되풀이한다. 이는 애초에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무지한 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탐욕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책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답을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에서 찾아 나서겠지만, 그 답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일찍이 인간의 마음이 발휘하는 독소적 기능을 세 가지로 간파했다. 이것을 삼독이라고 하는데, 그중 첫째가 바로 탐욕이고, 나머지 둘은 혐오와 무지이다. 행복의 허실을 결정하는 일차적 요소가 탐욕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둘도 불가피하게 함께 관여한다. 그래서 삼독의 강도와 행복의 질은 반비례하게 된다. 즉 삼독의 강도가 셀수록 행복의 질은 부실하게 되고, 그 강도가 약할수록 행복의 질은 건실하게 된다. 행복지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삼독의 작용을 수치로 환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들이다. 박재원 기자



저자·정승석

대림이 전한 차씨 ‘강진·해남’ 이 아니라 ‘지리산’

천년의 차향

최석환 지음 | 월간 차의 세계 펴냄 | 3만3천원



천년의 한국 차사(茶史)를 정리했다. 한국 차의 역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나가면서 한국 차의 기원과 제다의 새로운 사실들을 소개한다.

5천 년 전 신농씨가 차를 발견하고 유향가 <다경(茶經)>을 저술하면서 차와 사람은 만남을 이어왔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차가 4대 문화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차문화사는 신라의 대림이 당나라에서 차씨를 들여온 것으로 시작된다. 책에서는 대림이 당나라로부터 차씨를 가져오기 전 신라의 김지장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 차씨를 가져가 중국에서 명차로 자리 잡은 구와 불차의 내력을 밝히고 있고, 저자의 노력으로 중국 오백나한에 오른 사실이 밝혀진 무상 선사사의 선차 지법이 조주의 꼭대기로 이어졌고 마침내 원오극근을 통해 대선일미가 일본에 전파된 내력을 소상히



심화령 앞에서 차를 올리는 지민 스님

밝히고 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차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갔을까. 사람들이 차를 앞에 놓고 갖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차는 종교, 서화, 문화와 어울리면서 수천 년 간 이어져 갔다.

박영보(1808~1872)의 <남차병서>에는 “신라 땅의 사신이 당나라에 들어가 만리 뱃길에 차씨를 지니고 푸른 바다를 건너왔다. 강진과 해남 땅은 푸른의 나개와 한 가지인데 씨 한번 뿌린 뒤로 내버려 두었다. 봄색과 가을 꽃을 돌보지 않아 푸른 산에서 자생하면서 일 천년이 지나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책은 “박영보가 대림이 전한 차씨를 강진과 해남으로 기술했던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삼국사기>에는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2 ~ 5/28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2 | 살이 깊은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월호 | 마음의숲 |
| 3 | 멈추던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혜민 | 생애평커스 |
| 4 | 틱낫한 명상 | 틱낫한 | 불광출판사 |
| 5 | 맑은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웅화 |
| 6 | 깨달음 | 법륜 | 정토출판 |
| 7 |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 보경 | 민족사 |
| 8 | 중도란 무엇인가 | 틱낫한 | 사군자 |
| 9 | 행복한 금강경 이야기 | 설우 | 사유수 |
| 10 |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 서암 | 정토출판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화제의 신간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종교를 뛰어넘은 삶의 나침반!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한 삶의 지혜와 자비를 열어준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난해한 불교 용어가 아닌,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 닿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불교경전 <숫타니파타> 이 책을 마음으로 암송하듯 읽다 보면, <숫타니파타> 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보경 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 보경 스님의 친절한 해설
보경 스님 지음 / 376쪽 / 15,000원 / 반양장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중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워터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동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행복의 법칙! 무아·무심·하심

나를 버리면 정말 행복해질까?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무아·무심·하심의 행복론

우리는 무지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바라는 강도가 셀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도 간단하다. 바라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무아·무심·하심의 행복론>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일깨워 주고 있다.

정승석 지음 / 4x6판 / 232쪽 / 10,800원 / 반양장